

2022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교시)

1. 제시문 및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만 2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해서 강하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팬데믹으로 정의하였고, 그 특성상 한 국가에서만 코로나 감염병 종식이 성립될 수 없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염 전파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각 국가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가운데 사망자 감소와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현재 백신 접종에 의존하고 있다.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과 국가들은 세계적 질병 확산의 공포를 잠식시키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세계 여러 백신 생산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였고, 생산 제품의 보급 확대에 힘썼다.

국제적 제약기업과 자본은 보건의료 자원 중 약품과 백신에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목표로 개입하게 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도 기업의 동기와 이해관계가 작동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각 기업의 이해에 기초하여 동기가 부여되었기에 이는 현실주의적 국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생산과 보급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한 제약기업과 국가들은 거대한 이윤의 창출이라는 시장의 보상은 물론, 세계적 문제 해결에 공헌했다는 이미지 향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도 사회 경제적 지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에서 경쟁을 통한 생산성과 시장 확보를 이룬 기업이나 국가는 포스트 코로나의 의료협력 체계와 보건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을 통한 능력발휘를 극대화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세계의 언론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투에서 국가들이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의료장비와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인접 국가들은 관련 물품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지자체가 보건기금으로 터키에서 구매하고자 했던 인공호흡기도 터키 정부가 자국 내 의료품 공급 부족을 이유로 물품선적을 보류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백신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집계를 총괄하고 있는 듀크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용이 승인된 백신은 선구매 계약을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구수의 배가 넘는 물량을 입도선매하였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체제 속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충분한 국내 백신 생산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국외로 공급하는 일정을 미루고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 1월부터 유럽 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유럽 외 국가로 수출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백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상당수는 2021년 말이 되어도 전체 인구의 20%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백신 수요가 늘어나고, 선진국이 부스터 샷 접종을 위해 대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각각 25%,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이미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화이자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260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28.8% 상향 조정하였고 모더나 매출은 3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라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국가 정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편지를 보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가 간 백신 보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으며 코로나 변이출현을 가능하게 하여 코로나 위기상황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가 간 백신 불균형은 단지 일부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노동시장에 공급 부족이 심화 될 수 있어 후진국의 경제회복 지연은 선진국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

<다>

경쟁은 자연선택과 진화의 원동력이다. 진화의 역사에서 모든 개체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한다. 필요한 가용자원은 언제나 부족하며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경쟁만이 최적자를 가려내는 유일한 방도이고 경쟁의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이다. 경쟁의 승리는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보장하며 경쟁의 과정은 개인 및 집단의 능력을 최적화한다. 개인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어떤 가격으로든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진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 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힘이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법이 용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개인이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정하는 경쟁능력은 박탈된다. 경쟁은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의 전망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경쟁이 선호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우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가장 효율적이며,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경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조치로서 강제적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다만 경쟁의 작동을 도울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간섭은 허용하며,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정부 활동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경쟁이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

협력이 발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에게 협력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 경우, 협력하고자 하는 개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협력하는 것이 손해가 아닐 때조차, 배신의 유혹 때문에 협력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개체들이 협력을 통해 비제로섬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호협력이 가능해진다.

진화의 역사에서 개체들은 협력과 배반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생존과 번식을 꾀한다. 상대가 배반할 때도 계속 협력하기만 하는 전략은 얻는 게 가장 적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배반만 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결국 상대의 배반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상호배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액셀로드(Robert Axelrod)에 따르면, 가장 성과가 좋은 전략은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배반하면 갚아 주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이용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반의 메아리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협력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전략의 성공은 신사적이고, 보복적이고, 관대하고, 명료한 특성들이 조합된 결과이다.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신사적 태도는 쓸데없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며, 보복적이기에 상대의 배반이 지속되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가 배신한 후에도 협력하기를 계속하는 관대함은 상호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처하는 명료성은 상대를 쉽게 이해시켜 장기적 협력을 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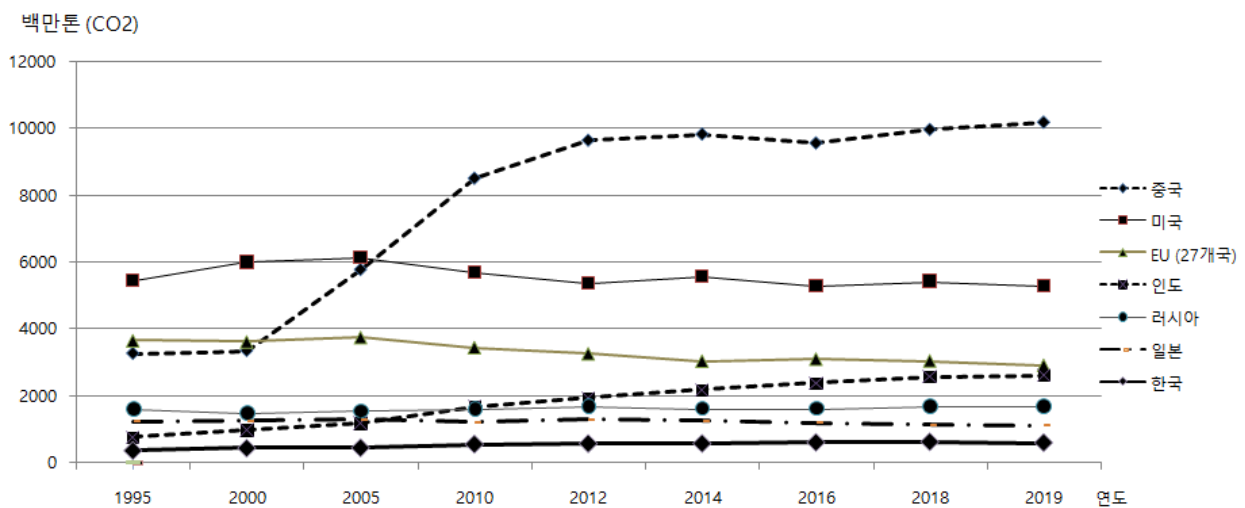
연구 공동체 수유너머는 협력의 전략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질투심을 버려야 한다. 성공은 상대를 이기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상대를 먼저 배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승자가 되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복할 때 확실히 보복해야 한다.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을 때 단호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상대가 협력이 더 나은 선택임을 인지하여 협력에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약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늘 단순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상황에서 협력을 끌어내려면 상대에게 내 행동 원칙을 명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즉 나는 기본적으로 협력하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나도 보복할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세계적 이상고온 및 폭우 등 자연재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로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는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후진국의 감축 의무 부재, 그리고 이행 기간의 제한 등으로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2016년 파리기후 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참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합의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기후위기 대응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파리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선진국에게 후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영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8%, 프랑스는 55%, 한국은 24.4% 감축하겠다고 하는 등 각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란, 터키, 이라크, 예멘, 남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하여 공동의 노력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파리협정 후 5년이 된 현재까지도 큰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고 현재의 추세로라면 오히려 지구 온도가 세기말에는 섭씨 3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



문제 1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에 제시된 방식을 설명하고, 〈나〉에 제시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가〉 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900±100자)

문제 2

〈다〉와 〈라〉의 관점이 〈마〉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다〉와 〈라〉의 관점을 종합하여 〈마〉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900±100자)